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루가 제 10 주일

성 바르바라 대순교자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수도자

(제8조 • 조과 부활 복음 3)

* 조과에서 성탄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8조 부활 찬양송 82

순교자 찬양송 84

성당 찬양송

성탄 대림절 시기송 208

사도경 : 갈라디아 3,23~4,5 629

복음경 : 루가 13,10~17 129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하느님에 관한 참된 지식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이 정교회를 통해 전해 준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의 보물을 우리는 진정으로 높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구상의 인구 중에 일부는 이 보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참된 하느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로마 1,25)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물 나무 산과 같은 피조물이나 상상력으로 우상을 고안하고 만들어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금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금식 기간이 시작되었다. 금식 기간이 도래할 때면 먼저 고기나 생선 등 금지해야 할 음식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음식을 절제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살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님은 사람인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였고, 아담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며 하느님과 함께 에덴동산을 거니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사람인 아담은 죽음의 세계로 추방당하고 오늘날 우리도 아담처럼 죽음을 맞게 되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의 삶에 살던 우리가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 하느님과 친교를 맺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금식과 기도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먹고 싶은 것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하며,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지난날을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복된 거룩한 삶을 찾아가는 고행의 여정이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실행해야 한다.

먼저 음식을 절제하는 것으로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의 종류를 줄이고 조금 부족함을 느끼듯이 양을 줄여 섭취한다. 이러한 절제를 통해 생겨난 물질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해져 갈 것이다. ‘굽주린 이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이사야 58,10 참조)

다음으로는 영적인 금식을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하루의 일이 끝나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가며 만나 줄 친구를 찾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들은 편한 자리를 잡아 TV를 보거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극적인 기사를 보면서 피곤했던 하루를 보상받는 기분으로 시간을 보낸다. 영적 금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버리고 침묵과 고요 속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참회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영적 기쁨을 누리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영적인 전쟁

아타나시아 봉사자



요한 크론스타트 성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투쟁(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정념(파토스: 악으로 기우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걱정)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정념이 우리에게 횡포를 부리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거슬러서 싸우는 정념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념이 포악하면서도 강압적으로 우리를 차지할 것이며, 마치 강도처럼 우리 영혼 안으로 침입해 들어올 것입니다. 하늘의 복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애착도 증대될 것이며, 하느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우리 양심의 안식과 마음의 평화는 점점 더 희

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투쟁해야만 합니다.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짊고 일시적인 것, 환영, 허깨비 같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천상의 것 모두, 특히 주님 당신을 진리 그 자체, 영원하신 분, 가장 복되고 불변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온 생애 동안 계속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에게 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수련, 곧 참된 금욕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부정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금식, 적(원수)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겸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용서를 청하는 것, 남에게 너그러이 베푸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끊임없이 성체성혈을 받아 모시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 등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념을 극복하는 길이 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2월 6일(화), 축일을 맞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 여러분과 7일(수), 축일을 맞이하시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12월 6일(화)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 * 12월 7일(수)
성 암브로시오스
밀라노의 대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추도식

다음 주일(11일)에는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안식 6개월을 맞아 추도식이 성찬예배에 이어서 모든 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소식

■ 서울 성당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축일' 일정 안내

- 12월 4일(오늘) : 오찬 후, 성당 대청소 및 성탄 장식 (모두 참여)
- 12월 5일(월) 오후 5시 30분부터 :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성상 행렬, 성찬예배, 만찬
- 12월 6일(화) 오전 9시부터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오찬

■ 일본 도쿄 사목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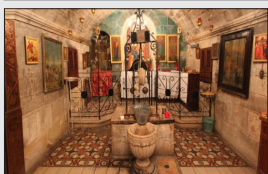
일본 정교회를 관할하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지난 26~28일 도쿄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 희생자 추도식과 성찬예배를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Paul Koroluk 신부와 로만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함께 집전하였습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11월 26일, 인천 성당의 아가피 한영주 교우(에반티아 김현숙 교우의 母)께서 95세로 안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고인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야곱의 우물과 사마리아 여인 :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표지 사진 설명



하루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와 있었다. 마침 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 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하셨다.(요한 4,5~7; 13~14)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3km 떨어진 사마리아의 시카르(Sycar)는 구약에서는 세겜(Shechem)으로, 아랍인들은 나블루스(Nablus)라고 부르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고대 도시이다. 이곳 시카르 근방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야곱의 우물이 있다. 구약성서에는 야곱이 형 에사를 피해 도망갔던 바탄아람에서 되돌아와 세겜에 이르러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했다고 언급한다.(창세기 33,18~20) 신약성서에서는 야곱이 자기 후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파놓은 것이라고 설명한다.(요한 4,12)

야곱의 우물 위에 세워진 성당은 384년 최초로 지어졌으며, 현재의 성당은 1893년에 재건축되었고, 복원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성당의 제단 옆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그곳에 야곱의 우물(사진)이 있다. 석조 구조물로 된 깊이 40m 가량의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영혼을 밝히고 구원되어 자신이 사는 지역부터 시작하여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럽까지 선교활동을 했고 '포티니'라는 이름을 받았다.